

예수는 부활의 주 (2)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51-54, 요한계시록 20:4-6, 흠정역

[요한계시록 20:4-6] 4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되, 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6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1. 참된 성도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

우리가 앞서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때의 사역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중의 왕이 아니고 선한 목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갈보리 언덕위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여야 하였고, 사흘 밤 낮 죽음을 경험한 후에 부활하시고, 40 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림 사역 내내 여러 차례 자신이 다시 오실 것, 즉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바와 같이, 재림 때에는 자신이 심판의 왕, 세상을 다스릴 왕중의 왕으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통하여 종말에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거짓 종교와 그들에 동조하여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로 멸망시키실 것인지,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그들과 함께 자신이 이 땅에 수립할 왕국을 천년동안 다스릴 계획에 관하여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을 위하여 희생 당하거나, 어떠한 억압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다시 살아서 [20:4], 즉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권좌에 올라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참여할 것에 관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활의 사건을 '첫째 부활 [First Resurrection]'이라고 부릅니다. 첫째가 있으면 둘째 부활 사건도 있겠지요. 지난 1 세기부터 지금까지 수 많은 참된 성도들이 주님의 참된 믿음을 위하여 굳게 서고 옳지 않은 세력에게 굴하지 않아 순교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기, 즉 종말의 시기 7 년의 후반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고난 [Great Tribulation]'의 때가 올 것입니다 [마태 24:15; 마가 13:14]. 이 때에도 여러 성도들, 특히 예수님을 믿게되는 유대인들. 소위 'Messianic Jews'들이 순교하고 극심한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전 어느 시점에 소위 '휴거 [Rapture]' 사건이 일어날 것이며, 이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5 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 장에 두번에 걸쳐 비교적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 장에는 주님께서 구름 위에 오셔서 큰 낫을 휘둘러 이 땅의 잘 익은 수확을 거두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휴거 사건의 묘사와 매우 흡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51-54]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14-17]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4:14-16]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16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이 휴거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 년의 환란 기간이 시작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땅에서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와 적 그리스도의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휴거 사건이 ‘환란 전 [Pre-Tribulation]’에 발생할 것으로 믿는 것이지요. 다른 신학자들은 7 년의 환란 기간의 중간 시점, 즉 후반의 ‘대 환란’이 시작 되기 전에 땅에 있는 성도들을 구출하여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은 소위 ‘환란 중반 [Mid-Tribulation]’에 휴거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 땅의 성도들이 환란 기간을 거의 모두 거친 후에 환란 기간의 마지막 어떤 때에, 즉 7 년이 거의 다 갈 무렵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성도들을 수확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즉, ‘환란 종말 [End-Tribulation]’에 휴거가 발생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환란의 끝 부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을 믿는 분들은,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고, 마지막 재앙 직후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종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환란의 재앙들로부터 보호하실 것이지만, 자신의 엄청난 분노로서 믿지 않는 이 세상을 벌하시고, 적 그리스도와 음녀를 멸망시키시는 모습을 그분의 성도들이 모두 보게 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하신 것처럼 종말에도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실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만일 위에서 소개한 계시록 14 장의 수확 사건이 사도 바울이 두번 묘사한 휴거와 동일한 사건이라고 믿는다면, 계시록 14 장에 예언된 사건들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판단할 때에 휴거는 7 년 환란 기간의 마지막 기간 중에, 특히 계시록 14 장 8-11 절에 예언되었고 18 장 전체에 다시 상세히 묘사된 바빌론 음녀, 즉 천주교의 본산인 바티칸의 멸망 사건의 직후에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 사건에 대한 예언이 음녀 바빌론의 멸망 다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 장의 추수에 관하여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여러번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에 견주어 이 종말의 추수 사건을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13 장에서 말씀하시는 가라지의 비유를 살펴 보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가라지와 좋은 곡식의 추수 모습은 계시록 14 장의 두가지 수확과 일치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29-30]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앞서 본 계시록 14:14-16 은 주님 스스로 구름위에서 낫을 휘둘러 잘 익은 수확물을 거두시는 모습인데, 이는 잘 익은 곡식과 같은 땅위의 성도들을 휴거의 형태로 추수하시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14:17-20 은 천사들로 하여금 가라지들을 모두 모아 불태우도록 하는 소위 '가라지 수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17-20]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18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19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20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에까지 닿았으며 천육백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이 가라지 수확이 종말에 계시록에서 예언한 것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마귀와 거짓 종교와 또 그들과 동조하는 악의 세력으로서, 즉 가라지로서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송이들'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져질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개하고 주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39-42]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42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앓아 있으리라.

휴거 사건이 언제 일어나던간에, 참된 성도들은 환란이 오더라도 주님의 이름과 진리를 굳게 지키고 적 그리스도와 짐승과 음녀의 패거리에게 설득당하거나, 그들의 협박을 두려워 하거나, 그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진리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앙을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한 바와 같이 휴거 사건은 참으로 초자연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그분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똑바로 보고 있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0-11]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11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두 번 휴거 사건을 묘사한 구절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이 때에 주님께서서는 이 땅으로 내려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공중에서, 즉 승천 때와 유사하게 구름 속에 계시면서, 호령과 나팔 소리를 통하여 죽은 성도들을 먼저 무덤 속으로부터 이끌어 내어 부활시켜서 공중으로 올리시고, 이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역시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 나뉘 채어져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얼마나 극적이고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소위 과학적인 생각에 사로 잡힌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 이벤트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된 모든 부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왕국으로 이동하여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을 한 후에, 신랑이신 예수님과 준비된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 7-9].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왕중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쳐 부수시고 몰살시키실 것입니다 [계시록 19:17-21]. 그리고 나서야 주님의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수립될 것입니다 [계시록 20:1-4].

어떤 분들은 모든 구원 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의 통치권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특권이 모든 성도에게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구원은 모두 사망과 하나님의 저주에서 동일하게 구원받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가 동일한 상급을 받지는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선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투자하여 얻은 양에 따라서 주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때에 '선택받은' 성도들을 하늘 왕국의 여러 곳에서 불러 모아서 이들과 함께 오실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30-31]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위의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주님으로부터 천년 왕국을 함께 다스리도록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시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휴거를 통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 왕국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님과 함께 구름들을 타고 이 땅으로 재림하심에 동참하게 되니 얼마나 큰 특권일까요. 물론 천년 왕국에 함께 가도록 선택 받지 못한 많은 분들은 하늘 왕국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생을 살 때에 주님의 천년 왕국 통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갖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목표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휴거와 첫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성경에 근거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묵상과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서 갖게 되는 소망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그리고 그 소망이 얼마나 지니고 지킬만한 큰 가치가 있는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세상에 다가올 어떤 환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힘입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잘 지켜야 함을 깨닫고,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우리 각자를 잘 알고 계시며, 우리 처지의 모든 상세한 것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대신 책임져 주실 것이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더라도 부활의 주이신 주님께서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보상과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부활한 성도의 천년 왕국 통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의 부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거두어서 용광로 속에 던져 넣는 소위 '가라지 수확'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수확'으로 일어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부활이란 무엇이며, 악인들의 부활은 언제, 어떤 형태로 일어날 것인가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라면, 둘째 부활은 천년 왕국의 끝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과 권위를 입고서 왕중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 오셔서 온 세상의 정치적 권세를 굴복 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이 왕중의 왕, 온 세계의 통치자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도 주 예수님께 나아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권 아래 자신의 통치권을 헌납함으로써 세계 모든 나라들이 주님의 왕권아래 모두 통일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15-16]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주님께서서는 초림 때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분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멸당하고, 체벌 당하고, 능멸 당하고, 죄 없이 정죄 당하고, 사악한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닐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이제 전투를 위하여 온전히 준비된 용맹한 하늘의 전쟁 사령관의 모습으로 그의 옷과 넓적 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이름을 확연히 보이시는 총 사령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복수를 집행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포도즙 틀을 스스로 밟으심으로 그 틀에서 나오는 포도즙, 즉 죽임 당한 원수들의 피가 예루살렘 옆에 돌린 계곡을 흘러 사해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피의 강물의 깊이가 말의 머리에 착용시키는 굴레의 높이, 즉 보통 사람의 어깨 높이는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20]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에까지 닿았으며 천육백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이 피의 강이 1600 스타디온, 즉 251 킬로미터를 흐를 것이라고 했으니 총 길이가 약 50 킬로미터인 사해를 거쳐서 그곳에서 다시 남쪽으로 약 200 킬로미터를 흘러서 아카바 만으로 들어가 바닷물이 온통 핏빛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움에 떨만한 주 하나님의 큰 진노의 결과를 미리 말해주는 상세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적부터 아카바 만을 예언적으로 ‘홍해 [Red Sea]’라고 불렀고 [열왕기상 9:26], 모세 세대에 이 아카바 만의 중간에 있는 수심이 가장 낮은 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바닷물을 가르시고 백성을 추적하는 이집트 군대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 유명한 홍해 건너기 이적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면서 천년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에도 불구하고 천년이 차서 사탄을 다시 무저갱에서 풀어주니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사탄의 편에 서게 되고 그들은 주님에게 대적하여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7-10]. 그 결과 사탄은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지옥에는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이미 던져져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 20:10].

그리고는 흰 왕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기록에 따라 자신의 행위들이 심판 받을 것입니다. 바다도 죽은 자들의 시체를 내어 줄 것이며, 사망과 지옥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 즉 이미 부활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되어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이니, 이것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한 부활의 이적입니다. 이 두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만일 악을 행한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징벌을 받지 않고, 믿는 성도들만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의 처벌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혼들이 그들의 육체와 더불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늘 왕국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적합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것과 유사하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악한 혼들 역시 영원히 계속될 지옥불의 형벌을 온전히 체험하면서도 소멸되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므로 지옥 형벌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접하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런 시민으로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부활되어야 하는 처참한 결말을 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복음의 부름에 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